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24.

발 의 자 : 이용호 · 이원택 · 김수홍
배진교 · 이상직 · 최인호
고영인 · 남인순 · 이상현
한병도 · 김영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트라이애슬론(철인3종 경기)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.

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, 이들 중 60%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 즉,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“직장 내 괴롭힘”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 · 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,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,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

임(안 제109조제1항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“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
2.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u><신설></u>	제109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.
<u><신설></u>	1.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
<u><신설></u>	2.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